

##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활용실태

정인경·김진숙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the 'Food and Nutrition,' Area of the Home Economics Subject by Middle School Students

Jung, In Kyung · Kim, Jin Soo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systematic, efficient, and developmental plans for dietary and nutrition education, through analyzing students' perceptions and utilizations of the 'Food and Nutrition,' area of Technology·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on general environmental factors, perceptions, and utilization of the 'Food and Nutrition,' area. The subjects were 807 middle school students of the seventh, eighth, and ninth grades in Gyeonggi province. Most of the students positively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the 'Food and Nutrition,' area in Technology·Home economics. However, changes in the interest in 'Food and Nutrition,' after a lesson were not significant. The utilization of the lesson appeared highest in cases where the teachers' instructing methods went abreast with teaching focused on practice or teaching based on practice and theory and if teachers used various teaching material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eachers should make efforts to raise the students' interest for the lesson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lesson should complement the learners' demands such that they are useful in real life situations. Also, more positive teaching methods and various media which could satisfy the needs and interests of the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eaching methods should be evaluated for an effective and practical curriculum of 'Food and Nutrition,' in Home Economics.

Key words: Technology·Home economics, perception, utilization

##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신체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며 성적성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신체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조직의 형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이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영양소 공급을 위해서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김숙희 등 1994).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가공식품 및 패스트푸드의 선호 및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에 따른 식이 요인성 성인질환이 증가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복란·조영은 2001; 진영희 2001; 김선희·정진희 2001). 반면, 대중매체의 발달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체형을 왜곡되게 인식하여 체중감량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이 무리한 체중조절로 이어져 식품섭취 기피에 따른 영양결핍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박민경 2002).

이러한 청소년기의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의 식습관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최선정 등 2004). 따라서 청소년기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는 일생의 건강에 기초가 되므로 이 시기에 정확한 영양지식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태도와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이원희 등 1988).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은 과거에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식생활 전반에 있어 가정에서의 지도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또한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의 청소년 가정에서 영양교육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생활교육에서 학교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영양교육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안혜경 1994; 김보나 1996; 이선화 1997).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또한 감수성이 예민하여 영양에 관한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학교교과 과정을 통한 식생활 교육은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교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더욱 필요하다(윤숙영 2003).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주로 기술·가정교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확한 영양지식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에 대한 지도를 통해 중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술·가정교과를 통한 식생활 교육은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에게 교육 후에 나타난 영양지식뿐 아니라 식행동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교육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어진 바 있다(박인영 2004). 따라서 학교교과 교육과정 중 기술·가정교과「식생활 단원」을 통하여 정확한 영양지식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식생활태도와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2001년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가정교과는 실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적 교과로서 체험학습을 통하여 개념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며, 일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여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지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부 1997). 특히 기술·가정 교과의 여러 단원 중에서도 「식생활 단원」을 통해 습득하는 식생활과 관련된 영양에 대한 지식은 식생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꼭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기술교과와의 병합으로 기술·가정교과로 통합되면서 주당 수업시수가 감소되어 실생활에 직접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을 제공할 기회가 줄어들어 대부분 교과서 중심의 이론위주 수업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효순 1997; 두경자 1997; 이수정 1999; 허경숙 2000). 또한 교과 내용도 대폭 축소·조정이 되어,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개 전 학년에 걸쳐 다루어졌던 식생활 관련 내용이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과 3학년에서만 그 내용이 다루어지게 되어 충분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식생활 관리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기술·가정교과를 통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식생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실생활에의 활용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가정 교과내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 선호도 및 실생활에서의 활용정도를 알아봄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학습자 중심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방안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8개 교)에 재학 중인 1,2,3학년 남녀학생(남 407명, 여 4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기술·가정교과 담당교사의 협조를 받아 조사원이 직접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배부하고 조사대상이 자기 기입방법으로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총 820부를 배부하여 회수한 후 이중 응답 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807부(98.4%)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조사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이진림 2000; 고혜란 2001; 임수경 2003; 김영찬 2003; 박인영 2004; 정미자 2004)를 참고로 작성한 다음, 전공교수 및 가정과 교사에게 타당도를 검증 받아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조사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주로 객관식 문항이었고 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실생활에의 활용정도와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 및 학습자료 이용실태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학습내용별 필요도 및 학습목표별 활용도는 제7차 중학

교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교과 식생활 단원 학습내용 및 학습목표에 따라 구성된 1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에 대한 문항은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정도가 높은 것으로, 활용도에 대한 문항은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실생활에의 활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 3.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조사된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0.0)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사항, 식생활단원에 대한 인식 및 활용정도와 교사의 학습지도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필요도 및 활용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낸 후 성별에 따라 Chi-square test와 T-test를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식생활단원에 대한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 및 학습자료 이용 정도에 따른 학생들의 식생활 단원 활용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한 후 ANOVA를 통해 분석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서와 같이 남학생이 50.4%(407명), 여학생이 49.6%(400명)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31.6%, 2학년이 37.5%, 3학년이 30.9%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아버지 연령은 40~49세가 전체 대상자의 88.2%였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40~49세가 전체 대상자의 74.3%로 조사대상자의 부모 연령층이 대부분 40대였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 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 48.7%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도 고졸이 64.1%로 가장 많았으나 대졸 이상인 아버지가 47.7%, 어머니가 32.4%로서 학력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전체의 3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산·기능직」이 20.6%순 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무직·가정주부」가 전체 대상자의 46.2%로 나타나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Boys (n=407)	Girls (n=400)	Total (n=807)	
Grade	1	129(31.7)	126(31.5)	255(31.6)	
	2	149(36.6)	154(38.5)	303(37.5)	
	3	129(31.7)	120(30.0)	249(30.9)	
Parents' Age (Year)	Father				
	< 39	15(3.9)	21(5.3)	36(4.7)	
	40 - 49	340(87.6)	335(88.9)	675(88.2)	
Mother	50 - 59	33(8.5)	21(5.6)	54(7.1)	
	< 39	85(22.1)	93(24.5)	178(23.5)	
	40 - 49	290(75.5)	274(73.1)	564(74.3)	
Parents' education level	Father	50 - 59	9(2.3)	8(2.1)	17(2.2)
		< Middle school	16(4.1)	12(3.1)	28(3.6)
		High school	197(50.1)	186(47.3)	383(48.7)
		College and university	139(35.4)	164(41.7)	303(38.5)
Mother	> Graduate school	41(10.4)	31(7.9)	72(9.2)	
	< Middle school	15(3.8)	12(3.1)	27(3.4)	
	High school	237(60.6)	265(67.6)	502(64.1)	
	College and university	111(28.4)	100(25.5)	211(26.9)	
Parents' Occupation	Father	> Graduate school	28(7.2)	15(3.8)	43(5.5)
		None/Housewife	1(0.3)	0(0.0)	1(0.1)
		Labor/ production	85(21.4)	78(19.8)	163(20.6)
		Sales/service	60(15.1)	57(14.5)	117(14.8)
		Office work	145(36.4)	159(40.5)	304(38.4)
		Profession	29(7.3)	30(7.6)	59(7.5)
	Mother	Others	78(19.6)	69(17.6)	147(18.6)
		None/Housewife	168(42.3)	197(50.1)	365(46.2)
		Labor/ production	22(5.5)	10(2.5)	32(4.1)
		Sales/service	82(20.7)	91(23.2)	173(21.9)
Others	Office work	52(13.1)	44(11.2)	96(12.2)	
	Profession	29(7.3)	9(2.3)	38(4.8)	
	Others	44(11.1)	42(10.7)	86(10.9)	

2. 식생활 단원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교육 필요도

기술·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의 전반적인 필요성 및 학습 내용별 필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2, 3 과 같다. 기술·가정교과 중 식생활 단원의 필요정도를 묻는 문항에 조사 대상 학생의 20.1%가 '매우 필요하다', 44.3%가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단지 7.3%만이 '필요하지 않다'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로 응답하여 식생활 단원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비교해볼 때, 식생활 단원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

Table 2. The perception on necessity of 「food & nutrition」 area in Home Economics

		N(%)		
		Boys (n=407)	Girls (n=400)	Total (n=807)
Much necessary	86(21.1)	76(19.0)	162(20.1)	
Necessary	154(37.8)	203(50.9)	357(44.3)	
So-so	127(31.2)	101(25.3)	228(28.3)	
Not necessary	14(3.4)	15(3.8)	29(3.6)	
Not at all	26(6.4)	4(1.0)	30(3.7)	
$\chi^2=26.399^{***}$				

\*\*\*p <.001

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의 경우 69.9%, 남학생의 경우 58.9%였으며, '필요하지 않다'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은 남학생이 9.8%, 여학생이 4.8%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많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생활 단원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천 시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오현주와 홍성아(1997)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교과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다른 연구결과(이은정·신상옥 1992)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들의 경우 식생활은 어머니 또는 여성의 분야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 여학생에 비해 가정이나 실생활에서 식생활 단원 교육내용에 대한 활용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진다(류상희·유안진 1992; 김경애 등 2001). 따라서 가정과 교사는 식생활 단원을 지도할 때 남녀학생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남학생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생활 단원의 학습내용별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식생활 단원 학습내용별 필요정도를 묻는 10개 문항의 총점(50점) 평균은 41.2점(남학생 40.9점, 여학생 41.5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각 학습내용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영양문제'가 4.3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청소년기의 바른 식습관'(4.31점), '올바른 식품선택'(4.29점), '청소년기의 영양과 특성'(4.28점)의 순이었으며, '상차림'에 대한 필요도는 3.29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생들이 식생활 단원 학습내용 중 '청소년기 영양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한 이유는 현대에 와서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마스크의 영향으로 영양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류상희·유안진 1992). 반면 '상차림'에 관한 학생들의 필요도가 낮은 이유는 기술·가정교과서 내 상차림 관련내용이 주로 우리나라 전통 상차림과 서양식 상차림에 대한 이론적이고 암기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생활에 활용하기가 어려워 학생들의 흥미와 실천교과로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식생활 단원 학습내용별 필요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볼 때, '청소년의 영양문제(비만, 빈혈)'와 관련된 학습내용에 대한 필요도는 여학생이

Table 3. Educational needs for contents in 「food & nutrition」 area

Contents	Boys (n=407)	Girls (n=400)	Total (n=807)	T value
Type of nutrients	4.10±1.17 <sup>1)</sup>	4.14±1.23	4.12±1.20	-0.581
Nutrition in adolescents	4.30±1.09	4.25±1.13	4.28±1.11	0.668
Menu planning	4.24±1.09	4.29±1.13	4.27±1.11	-0.622
Setting the table	3.23±1.37	3.35±1.42	3.29±1.40	-1.22
Foods selecting	4.24±1.10	4.34±1.14	4.29±1.12	-1.267
Nutrition problem in adolescents	4.24±1.15	4.47±1.04	4.36±1.10	-3.028**
Balanced diets	4.32±1.11	4.30±1.19	4.31±1.15	0.231
Principle of cooking & preparing foods	4.12±1.23	4.30±1.11	4.21±1.18	-2.224*
Table manner	4.01±1.15	4.03±1.27	4.02±1.21	-0.206
Food safety and conservation	4.18±1.16	4.16±1.26	4.17±1.21	0.310
Total (50 points)	40.92±7.38	41.52±7.86	41.22±7.62	0.271

1) Mean±SD

\*p <.05 \*\*p <.01

4.47점으로 남학생 4.24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 < .01$ ). 또한 식생활 단원 중 '조리의 기초와 실제(음식 만들기)'와 관련된 학습내용에 대한 필요도 역시 여학생이 4.30점, 남학생 4.12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서울 및 전북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홍은정 (1996)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청소년기의 영양문제'와 '조리의 기초'에 대한 단원별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안수연 (2006)의 연구에서도 '조리의 기초와 기본적인 조리방법'에 대한 내용의 필요도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체형 및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 비만과 체중조절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강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리의 기초와 실제(음식 만들기)에

대한 필요도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은 이유는 가정 등 실생활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볼 기회가 더욱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 선호도

기술·가정 교과 식생활 단원의 선호정도 및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식생활 단원이 다른 단원에 비해 얼마나 좋은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매우 좋아한다'와 '좋아하는 편이다'에 각각 14.7%, 41.4%가 응답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기술·가정 교과의 다른 단원에 비해 식생활 단원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단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많은 다른 연구(최현덕 1999; 황인화·김기남 2000; 김은숙 등 2005)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

Table 4. The preference for 「food & nutrition」 area

		N(%)		
		Boys (n=407)	Girls (n=400)	Total (n=807)
Level of preference	very like	54(13.3)	64(16.0)	118(14.7)
	somewhat like	151(37.3)	182(45.6)	333(41.4)
	so-so	138(34.1)	124(31.1)	262(32.6)
	dislike	31(7.7)	22(5.5)	53(6.6)
	not at all	31(7.7)	7(1.8)	38(4.7)
		$\chi^2=21.124^{***}$		
Reasons for preference	to modify the improper eating habit	25(11.2)	11(4.3)	36(7.5)
	likes to prepare foods	133(59.4)	190(74.5)	323(67.4)
	to study the table manner	9(4.0)	4(1.6)	13(2.7)
	feeling interest in classroom work	18(8.0)	21(8.2)	39(8.1)
	to obtain knowledge for health	39(17.4)	29(11.4)	68(14.2)
		$\chi^2=17.193^{**}$		
Reasons for dislike	not need to learn because i'm in good health	11(14.7)	3(9.7)	14(13.2)
	difficult to learning	8(10.7)	6(19.4)	14(13.2)
	dislike teaching method focused on explanation and lecture	35(46.7)	13(41.9)	48(45.3)
	not interest in the contents	4(5.3)	2(6.5)	6(5.7)
	not useful to practical life	17(22.7)	7(22.6)	24(22.6)
		$\chi^2=1.824$		

\*\*p <.01 \*\*\*p <.001

슷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식생활 단원을 다른 단원에 비해 '좋아하는 편이다'고 응답한 여학생이 45.6%로 남학생의 37.3%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 ( $p<.001$ ), 식생활 단원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1.8%, 남학생은 7.7%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적어 여학생이 식생활 단원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리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학생의 6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 (14.2%)', '잘못된 식습관을 고칠 수 있기 때문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중학생을 식생활단원 인식과 학습효과에 대해 조사한 오현주와 홍성야(1997)의 연구에서도 식생활 단원을 좋아하는 이유로 '조리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8.3%로 많았고,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가 15.8%, '불규칙한 식습관을 고칠 수 있어서'가 10.4% 순으로 본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조리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생활 단원이 좋다고 응답한 여학생 (74.5%)이 남학생(59.4%)보다 많았고,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식생활 단원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이 11.4%로 남학생 17.4%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남·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1$ ). 이상의 결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조리실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실제의 가정생활에서 조리실습을 활용할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미래에 가정경영의 공동책임자인 남학생들의 조리실습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실습과 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내용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생활 단원을 싫어하는 이유로는 조사 대상 학생의 45.3%가 '이론위주의 수업이라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실제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2.6%, '식생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

서'와 '식생활을 배우지 않아도 건강하기 때문'에 식생활 단원을 싫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3.2%로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선호도 및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이가영(1997)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생활 단원에 대해 암기할 내용이 많고, 강의 위주의 수업이라 재미가 없다고 응답하여 본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이 식생활 단원을 통해 실제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암기위주의 이론 중심적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습을 병행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재의 연구와 학습지도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3) 학습 후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 정도

식생활 단원을 배우고 나서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조사 학생의 45.8%(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8.3%, 관심이 생긴 편이다 37.5%)가 관심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Table 5). 그러나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에 대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36.5%였고 '관심의 변화가 없었다'고 한 학생이 17.7%나 되어 식생활 단원 수업 후 학생들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황인화와 김기남(2000)의 연구에서도 식

Table 5. Interest in 「food & nutrition」area after learning process

	N(%)		
	Boys (n=407)	Girls (n=400)	Total (n=807)
Very interest	34(8.4)	32(8.1)	66(8.3)
Somewhat interest	140(34.7)	160(40.4)	300(37.5)
So-so	147(36.4)	145(36.6)	292(36.5)
Not interest	39(9.7)	46(11.6)	85(10.6)
Not at all	44(10.9)	13(3.3)	57(7.1)

$$\chi^2=18.766^{***}$$

\*\*\*p <.001

생활 단원 학습 후 관심의 변화를 묻는 문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45.3%, ‘그저 그렇다’ 34.8%, ‘관심의 변화가 없었다’에 대해서는 20%의 학생들이 응답하여 본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이는 제 7차 교육과정 이후 가정교과에 대한 수업시수 및 교과내용의 축소로 인해 충분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부족하여 식생활 단원에 대한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식생활태도에 변화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박민경 2002). 따라서 변화하는 학생들의 관심과 실생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대체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생활 단원 학습 후 관심의 변화정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볼 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와 ‘관심이 생긴 편이다’의 응답율은 여학생의 경우 각각 8.1%, 40.4%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각각 8.4%, 34.7%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심의 변화가 전혀 없다’에 응답한 남학생은 10.9%, 여학생은 3.3%로 조사되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식생활 단원을 학습한 후에 식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의 변화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1$ ).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 및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이 식생활 단원을 배우고 나서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3. 식생활 단원의 활용도

기술·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실생활에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식생활 단원 학습목표별로 학생들의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전체 학생들의 평균 활용도는(총점 50점) 35.6점으로, 경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진림(2000)의 연구에서의 식생활 단원 학습목표별 평균 활용도인 33.3 점과 비교해 볼 때 본 조사 대상 학생들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실생활 활용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목표별로 활용도를 살펴보면, ‘가공식품

구입 시에는 성분과 유통기한을 확인하게 되었다’(4.12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경우에 따라 식사준비는 스스로 한다’(4.05점), ‘간단한 음식은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다’(3.89 점)의 순이었으며, ‘가족의 식단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에 대한 학생들의 활용도는 2.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중학생들의 가정교과 학습내용의 활용정도를 조사한 정미자(2004)의 연구에서도 ‘가공식품의 성분 및 유통기한 확인’과 ‘간단한 식사준비’, ‘음식 조리’에 대한 내용들이 실생활에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학생들이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가공식품의 성분과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등의 경험이 많아졌고, 또한 어머니의 직장생활로 인해 스스로 간단한 식사준비 및 음식조리의 기회가 잦아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가정교과 내에 식생활 단원의 활용이 많은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실생활에 더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식생활 단원 학습목표 중 ‘가족의 식단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가족의 식단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영양소 및 식품재료의 양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식사 때마다 영양소의 종류와 양을 계산하여 이론적인 내용을 적용하는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생활 단원 학습목표별 활용도를 남녀별로 비교해 볼 때, 여학생의 경우 ‘가공식품 구입 시에는 성분, 유통기한을 확인하게 되었다’와 ( $p < .001$ ), ‘음식을 만들 때 조리기구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한다’, ‘식품구매 시 신선한 식품을 고를 수 있게 되었다’에 대해서 남학생에 비해 활용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실생활에 활용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 및 선호도가 높았으며 학습 후 관심의 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잘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le 6. Utilization for learning subjects in 「food & nutrition」 area

Learning subjects	Boys (n=407)	Girls (n=400)	Total (n=807)	T value
I try to have a balanced diet	3.47±1.471)	3.34±1.50	3.40±1.48	1.216
I try to correct the improper eating habit	3.54±1.43	3.44±1.45	3.49±1.44	1.004
I try to select low calory food for weight control	3.12±1.55	3.19±1.55	3.15±1.55	-0.657
I can to assess the menu for family	2.81±1.46	2.50±1.43	2.66±1.45	3.035**
I can to keep the table manner	3.53±1.39	3.47±1.36	3.50±1.37	0.617
I can to prepare the foods	3.88±1.45	3.90±1.48	3.89±1.47	-0.240
When purchasing processed foods, I try to confirm the food label	3.94±1.34	4.30±1.19	4.12±1.28	-4.027***
When purchasing foods, I can select the fresh foods	3.43±1.48	3.73±1.38	3.58±1.43	-2.980**
When preparing foods, I can use the cooker safe	3.76±1.31	4.00±1.26	3.88±1.29	-2.639**
I prepare foods sometimes by myself	3.93±1.42	4.18±1.30	4.05±1.37	-2.574*
Total (50 points)	35.32±9.25	35.95±8.81	35.63±9.03	-0.982

1) Mean±SD

\*p <.05 \*\*p <.01 \*\*\*p <.001

4. 식생활 단원 수업 시 교사의 학습지도방법 및 학습자료 이용 실태

기술·가정 수업시간에서의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 및 학습자료 이용 실태와 정도에 대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론 중심적인 수업’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수업’을 한다가 41.2%, ‘실습 중심수업’을 한

다고 응답한 학생은 15.4%로 조사되었다.

중학생들의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변현정(2004)의 연구에서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에 대해 이론 중심학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이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가정과 초임교사들이 주로 활용하는 교과지도 방법에 대해 조사한 황숙희(2003)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강의법’을 활용하여 교과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아직까지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론위주의 학습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위주의 수업방법은 학생들의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안혜경 1994; 현명선 등 2002). 따라서 가정과 교사들은 식생활 단원의 이론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는 강의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실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학습방법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가정 수업에서의 선생님의 학습자료 이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6.0%만이 선생님이 학습 자료를 수업시간에 ‘매우 많이 이용한다’라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3.3%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이용하

Table 7. The status of teaching methods and using materials for 「food & nutrition」 area

	N(%)			
	Boys (n=407)	Girls (n=400)	Total (n=807)	
Type of teaching methods	lecture	153(37.8)	196(49.1)	349(43.4)
	practice	76(18.8)	48(12.0)	124(15.4)
	lecture/ practice	176(43.5)	155(38.8)	331(41.2)
$\chi^2=12.909^{**}$				
Levels of using materials	very often	29(7.1)	19(4.8)	48(6.0)
	often	300(73.9)	289(72.8)	589(73.3)
	rarely	56(13.8)	69(17.4)	125(15.6)
	never	21(5.2)	20(5.0)	41(5.1)
$\chi^2=3.565$				

\*\*p <.01

지 않는다'(15.6%),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5.1%)의 순으로 조사되어 현재 교사들의 기술·가정교과 학습자료 이용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가정교과 수업시 교사의 교육매체 이용이 적은 이유는 가정과 교육에 대한 학교 당국의 관심과 다양한 교수매체를 구비하기 위한 노력 및 예산 부족 때문으로 보고된 바 있다(장현숙·조필교 1994; 김용숙·이영숙 1999). 그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변현정 2004)에서 수업시간에 학습자료의 이용이 많을수록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명숙(2000)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사용이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멀티미디어 사용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듯 멀티미디어 학습의 높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시간에서의 활용정도가 낮은 이유는 교사의 멀티미디어 수업능력 부족과 학교 환경 설비 미흡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교사가 학습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실생활에서의 활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능력과 활용을 위한 교사의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의 시설투자를 통한 다양한 학습 자료의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의 학습지도방법 및 학습자료 이용이 학생들의 식생활 단원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교사의 학습지도방법 및 학습자료 이용에 따른 학생들의 식생활 단원 활용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 학생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활용도는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이 '실습 중심의 수업(37.0점)' 또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수업(36.6점)'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이론 중심의 수업(34.2점)'이라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선생님의 수업운영방법에 따른 실생활 활용도를 조사한 두경자(1997)의 연구 결과에서도 '실기위주의 수업'과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수업방법'을 통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

이 '이론위주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 비해 가정교과내용을 실생활에 더욱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가 이론중심이 아닌 실습중심 또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학생들이 식생활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더욱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교과 활용도와 관련변수에 대해 조사한 김경숙과 박미금(1997)의 연구를 살펴보면, 가정과 수업이 현장학습을 통해 이루어질수록 학생들의 가정교과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기술·가정은 실생활에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 교과로서 체험 학습을 통하여 개념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21세기를 살아갈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교과"(교육부 1997)라고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특히 가정과 교과는 일상생활을 교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타 교과에 비해 실천적 가치가 큰 교과임을 고려해 본다면, 현장학습이나 견학과 같은 실제 체험을 통한 학습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보다 쉽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과거 이론중심의 암기위주의 수업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내용 및 실습

Table 8. The utilization for 「food & nutrition」 area by teaching methods and using materials

Type of teaching methods	lecture	34.17± 9.67 <sup>b1)2)</sup>
	practice	36.95± 8.59 <sup>a</sup>
	lecture/practice	36.61± 8.27 <sup>a</sup>
	total	35.60± 9.03
Levels of using materials	very often	40.60± 8.51 <sup>a</sup>
	often	36.45± 8.36 <sup>b</sup>
	rarely	32.11± 9.03 <sup>c</sup>
	never	28.51±12.01 <sup>d</sup>
	total	35.62± 9.05

1)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술·가정교사의 학습자료 이용정도에 따른 학생들의 식생활 단원 활용도를 비교해 보면, 수업시간에 교사가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학습 자료를 ‘매우 많이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활용도가 4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활용도는 36.5점,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32.1점),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28.5점)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식생활 단원에 대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이용한 교사의 수업이 학생들의 실생활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과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필요도, 선호도, 활용도를 조사하여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수용자 중심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발전 방안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 및 선호도는 높은 반면, 식생활 단원을 배우고 난 후 학생들의 관심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필요도 및 선호도 뿐 아니라 관심의 변화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현재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이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남녀 공통 이수 교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둘째, 식생활 단원의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들은 식생활 단원을 통해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실생활에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활용도가 더 낮았다. 또한 교사의 학습지도방법이 이론중심이 아닌 실습을 병행한

학습방법일 때, 그리고 다양한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 학생들의 활용도 점수가 높았다. 이는 교사의 학습지도방법 및 학습자료 이용정도가 학생들의 식생활 단원 내용의 활용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생들의 기술·가정교과 내 식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사 및 학교 기관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과 교사는 제한된 교육환경이지만 학생들의 학습요구나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식생활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일상 생활에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업방법 및 다양한 매체의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필요도 및 요구도가 높은 내용을 실생활에 더욱 용의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 내 식생활 단원 내용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수업시간 교사의 학습 자료의 적절한 활용이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실생활에서의 활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다양한 교수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경기지역에 소재한 중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전체 중학생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술·가정교과에서의 식생활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교과내용이나 교수·학습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따라서 대규모의 표집집단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교과내용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교육부(199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
- 고혜란 (2001) 식생활단원 교육이 중학생의 영양지식, 식태도, 식습관 및 TV식품 광고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박미금 (1998) 중학교 학생의 가정교과 활

용도와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1), 95-106.

김경애·정난희·신부용 (2001) 중·고등학생의 제 7차 기술·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2), 101-120.

김보나 (1996) 강릉지역 고등학교 학생의 일상식 구조에 관한 조사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복란·조영은 (2001) 강릉지역 중학생의 영양소 섭취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0(4), 739-746.

김선희·정진희 (2001) 서울시내 고등학생의 식행동과 패스트푸드 소비실태. 대한가정학회지 39(10), 111-124.

김숙희·김선희·강명희·유춘희·이상선·장남수 (1994) 가족영양학, 신판출판사.

김영찬 (2003)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중학생들의 태도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숙·이영숙 (1999) 중등학교 가정교사들의 교수매체 활용 및 관련변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2), 77-87.

김은숙·고무석·정난희. (2005) 중학생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3), 53-70.

김효순 (1997)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가정과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교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두경자 (1997) 중학교 남학생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요구 및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시내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1-15.

류상희·유안진 (1992)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관련변수.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5(1), 31-43.

박명숙 (2000) 멀티미디어 활용효과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105-114.

박민경 (2002)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 내용분석 및 교육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인영 (2004) 기술·가정 식생활 단원의 교육 전·후 중학생들의 영양지식 및 식행동 비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현정 (2004) 제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수연 (2006)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 및 활용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혜경 (1994) 남·녀 중학생의 식행동과 영양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현주·홍성야 (1997) 인천시내 남녀중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19-37.

윤숙영 (2003) 남·녀 중학생의 조리실습 경험에 따

른 조리교육 인지도, 요구도 및 활용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가영 (1997) 삼척시 중학생의 가정과 학습내용 흥미도와 식사행동과의 상관관계-식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화 (1997) 인문계·실업계 여고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태도와 식생활 양상에 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정 (1999) 현장 관찰을 통한 중학교 가정과 교수·학습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원희·김미향·한재숙 (1988) 대구시내 중학생들의 식습관 및 기호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식량학회지 17(4), 290-304.

이은정·신상욱 (1992) 중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과영역별 필요도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 시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17-30.

이진립 (2000) 중학생의 식생활 행동과 가정교과 식생활단원과과의 관련성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수경 (2003) 남자 중학생의 가정교과 인식 및 가정교과 영역별 요구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현숙·조필교 (1994) 중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및 의생활 단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활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2), 113-123.

정미자 (2004) 중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과 학습내용의 활용정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영희 (2001) 소도시지역 중학생의 식습관, 식생활 행동 및 영양지식.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7(4), 320-330.

최선정·손희숙·차연수·김숙배 (2004) 전북 일부 지역 중학생의 제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교과 중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9(1), 12-18.

최현덕 (1999) 중학생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식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경숙 (2000) 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남녀학생의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명선·장영상·현화진 (2002) 농촌 중학생의 식행동과 가정과 식생활단원에 대한 태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1(2), 211-222.

홍은정(1996)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학생들의 가정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숙희 (2003) 중등 가정과 초임교사의 교과지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인화·김기남 (2000) 가정교과<식생활 단원>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및 활용.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총 7(1), 45-61.